

여수박람회장 매각보다 공공활용 절실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했던 전남 여수시 오동도 앞 박람회장의 민간 매각을 반대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다.

28일 여수선언실천위원회(집행위원장 임영찬)는 전남 여수박람회장에서 여수박람회법 통과 이후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가진 결과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박람회장의 민간 매각보다는 박람회 정신을 계승한 국가 차원의 개발을 기대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여수시와 여수선언실천위원회·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주최 및 주관하고 여수시장, 도·시의원, 토론회,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 김전중 용인대 교수는 '세계의 워터프런트 개발 동향과 여수의 해양관광 가치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여수박람회장은 한국의 대표적 해양관광의 자산 가치가 있는 곳으로 향후 여수 관광의 핵심은 크루즈관광과 마리나 시설이 여행수지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대안이지만 박람회장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해의 관광객 유치 및 고급화 방안으로 크루즈 및 마리나 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면서 "국비 투자를 통한 박람회장 내 해양국립박물관 및 해양도서관 건립 추진이 박람회장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진구 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 사무처장은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상시 해양테코프스 체험을 위한 운영 일정 구성 및 실내풀장 활용, 해양수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처장은 "규격과 프로그램을 맞춰 교육부 해양안전체험센터로 지정 추진과 생존 수영 교육 및 지도자 양성시설로의 활용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정희 전남도 의원은 박람회장 내 공적시설 도입 등 공공적 사후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박람회장 내 컨벤션 센터 건립은 경제성이 양호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더라도 국토 균형 발전을 고려하기 때문에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수시와 전남도의 의견조율로 공적 활용방안을 더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수세계박람회장의 민간 매각 추진 보다 박람회 개최 정신과 세계와 약속한 여수 선언의 정신적 가치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조정희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익 채우는 민간 매각은 절대로 안돼 세계와 약속한 '여수선언' 어디로 갔나

수산연구 본부장은 "사익을 위한 박람회장 부지의 민간매각 보다는 여수선언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가적으로 불매 정부상환금 3724억 원보다 여수선언 정신을 계승해나가는 것이 큰 가치가 있다"며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통 국제적 여수 선언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이어 개도국을 대상으로 여수프로젝트를 확대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COP 유지를 필요성

을 강조했다. 김행기 여수시의원은 "크루즈 및 국제여객선 시설이 너무 협소해 확충이 절실하며 한 일 국제 정거객항로 신설,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면세점 도입, 쇼핑 시설 설치 등 관광콘텐츠를 확충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박람회장 내 A, B, C 부지는 항만 배후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매각계획을 전면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석만 석탄화력발전소 사천시민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여수 선언 정신을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며 "국가 해양개발 목표(크루즈 해양치유, 마리나 수중해양산업)에 맞춰 국비 투자가 선행되고 이후 민간투자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임영찬 집행위원장은 "심포지엄 결과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가 박람회장 민간투자유치를 반대했다"면서 "남해안 시민들의 바람대로 민간 매각보다는 남중권의 해양 관광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개발이 선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황로의 점심 식사 맑은 날씨를 보인 28일 오후 제주시 한경면 고선리 인근 들녘에 황로가 찾아와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

광주교육계 '올해의 스승상' 폐지 요구 잇따라

교육부와 조선훈교장 공동 주최하는 '올해의 스승상'에 대해 광주교육계에서 폐지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 교육청은 28일 "과도한 승진점수 부여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올해의 스승상' 폐지를 교육부에 공식 건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올해의 스승상'이 계속 수여될 경우 시교육청은 어떤 협조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점도 함께 표명했다.

지난 2001년 만들어진 올해의 스승상은 교육부와 조선훈교장 공동 주최해 왔다. 문제는 가산점으로 상을 받은 수상자들에게 연구실적 명목으로 전국 단위 1등급을 줘 1.5점의 승진 가산점을 부여해오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시교육청 현석룡 정책기획과장은 "특정 언론사가 수여하는 스승상 가운데 승진과 관련된 연구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올해의 스승상이 유일하다"며 "연구 점수 1.5점은 3년이 걸리는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점수로 매우 높아 교육계에서 올해의 스승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교원이 교육부장관상이나 대통령상을 받아도 승진점수는 전혀 받을 수 없다.

현 과장은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교육부 훈령에 명시된 전국규모 연구대회 20개 가운데 올해의 스승상은 17번째에 명시돼 있다"며 "시교육청은 특정 언론사가 주최하는

올해의 스승상 및 교육과 관련 없는 기관이 주최하는 연구대회의 즉각 폐지를 교육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광주교사노조는 "대통령상을 받아도 0.001점도 가산점이 없는 데도 특정 언론사에서 주는 상에는 무려 1.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20여년간 지속되고 있어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교총에서 운영하는 연구대회 가산점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광주교사노조는 민간 신문사나 특정 교원단체의 연구대회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日 초등생들 흥기난동에 2명 사망·16명 부상

일본에서 28일 아침 일찍 등갓길에 오른 초등학생들을 노린 것으로 추정되는 무차별적 흥기난동이 발생해, 12세 여학생 1명과 30대 남성이 숨지고 18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밤행 직후 자해를 가해 사망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불지마 범죄로 추정되는 흥기난동이 발생한 곳은 도쿄(東京) 인근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에 위치한 노보리토(登) 공원 인근 거리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5분께 노보리토 공원 인근 도로에서 한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흥기를 휘두르고 있다는 신고 전화가 들어왔다.

사건 현장은 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스쿨버스 정류장이 있는 주택가로, 이른 아침 학교에 가기 위해 스쿨버스를 기다리던 초등학생들이 주요 범행 타깃이 됐다.

목격자들은 용의자 남성이 양손에 흥기를 들고 스쿨버스를 기다리던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해 흥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스쿨버스 운전기사는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 멈춰 있었는데, 남성이 전방에 있는 편의점 주변에서 양손에 흥기를 들고 걸어와 버스에 타려던 초등학생들을 잇따라 찔렀다"고 말했다. 이어 "무슨 짓이냐며 용의자를 저지하자, 용의자는 후방으로 도망쳐 스스로 자해했다"고 운전기사는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가 휘두르는 흥기에 초등학생 16명과 성인 남녀 2명 등 18명이 찔렸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 가운데 초등학교 6학년생 여자아이(12) 1명과 39세 남성 등 2명이 사망했다. 나머지 16명은 중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 전화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에 있던 용의자를 체포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사건 직후 스스로 목을 찔러 자해를 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가와사키 시내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칭다오 지하철공사현장서 붕괴 3명 사망

중국 산둥성 칭다오의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27일 오후 붕괴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28일 중국 신화통신 등은 중국철도공사 산하 20국이 시공 중이던 칭다오 지하철 4호선 공사현장에서 전날 오후 5시40분(현지시간)에 붕괴사고가 발생해 5명의 근로자가 매몰됐다고 전했다.

구조 당국은 이날 새벽까지 수색 작업을 벌여 매몰자 3명의 시신을 발견했다. 당국은 나머지 매몰자 2명을 찾고 있다.

칭다오시와 철도공사 관계자는 사고 직후부터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지휘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들어 중국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16일 상하이 도심의 한 절거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10명이 숨졌다. 당시 구조 당국은 그 다음날 새벽까지 수색 작업을 벌여 25명의 매몰자를 모두 찾았다. 매몰자 중 10명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거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에베레스트 등반객 2명 사망...올해만 11명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던 등반객이 또 다시 사망해 몰려드는 등반객으로 정상 등반에 지장을 받으면서 목숨을 잃은 사망자가 올해 들어서만 11명으로 늘어났다.

네팔 관광청은 27일(현지시간) CNN과 통화에서 "미국인 크리스토퍼 존 콜리쉬(61)가 이날 아침 네팔 측 정상 도착한 후 하산하는 도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콜리쉬는 이날 하산하는 동안 건강했으며 이날 저녁 해발 7900m 높이에 위치한 사우스 콜(South Col)에 무사히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날 오스트리아의 한 등반객도 사망했다. 어니스트 렌드그 라프(64)는 자신의 꿈인 에베레스트 정상 정복을 실현한 후 몇 시간만에 숨졌다. 그의 장례식은 오는 29일 오스트리아 우발바흐에서 열릴 예정이다.

산악인들은 어려운 기상 조건, 경량 부족, 그리고 증가하는 탐험의 상업화를 에베레스트 등반 자연의 요인으로 꼽았다.

영국의 등산가 로빈 헤인스 피셔는 과밀의 위험을 경고한 등산가 가운데 한 명이었다. 피셔는 25일 정상 정복후 하산하던 도중 돌아오던 중 해발 8800m 지점에서 고산병 증세를 보이다가 사망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로에게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당에는 검진기관이 운영하지 않으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국가건강검진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보건복지부

[국번없이 129]

h-well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